

협회동정



▲「정보통신산업인 세계화 추진 송년모임」에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인은 세계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보통신산업인 세계화 추진 송년모임 개최

우리협회 등 6개 정보통신산업 관련협회는 지난 12월 7일 운동운 체신부 장관을 비롯한 산·학·연·관 각계의 관련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인 세계화 추진 송년모임」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개최했다.

이 송년모임에서 운동운 체신부 장관은 「격려 및 송년사」를 통해 ‘통신사업구조조정,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의 본격 추진 등 분주했던 한해를 회고

하는 한편 정부의 세계화 추진에 산업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장호 우리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정보통신부의 확대개편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전반의 총체적인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과 기대를 표하면서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이 세계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 송년모임은 운동운 체신부 장관의 「격려 및 송년사», 정장호 우리협회 회장의 「개회사», 이용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의 「정보통신산업인 세계화 다짐」 및 건배제의,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문의 : 임성무 부장)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표준화 환경에 새로운 전기 마련

국내 정보통신 표준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상호운용 워크숍 및 전시회(ION '94)」가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롯데호텔(소공동) 크리스탈볼룸과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됐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정보통신 표준구현 제품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하는

이 행사는 OSI 환경에서의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과 정보통신기기간의 상호운용성을 시범 전시하는 전시회로 구분되어 추진됐다.

워크숍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한국 등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최근 세계각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미국의 Information Super Highway」,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중 하나인 「B-ISDN 상호운용성」, 통신 프로토콜의

변화추이를 가름할 수 있는 「OSI의 향후전망」에 대한 초청강연과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정책」,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기술동향」,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 등에 대한 세션별 강연이 있었다.

또한 공동관과 개별관으로 나누어 개최된 전시회는 ION '94 개요관, 적합성시험시범관, IONet 상호운용성 시범관, ISDN 상호운용성 시범관, 표준화 자료관, 기관 및 개별업체 정보통신 시범전시관 등으로 구분해 적합성 시험서비스, 인터넷워킹, ATM 관련장치, ISDN 관련기기 등이 선보였다. 특히 이 전시회에는 정보통신 관련업체, 표준화 관련기관 및 연구기관은 물론, 학계에서 개발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상호접속을 실시하고 추진중인 국가차원에서의 적합성 시험 시범 및 소개 등이 있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표준화 환경에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각국이 자국의 정보통신 기반에 대한 국가표준을 세계 표준으로 제정해 세계 정보통신



▲ 윤동운 체신부 장관이 ION '94 행사장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신시장을 선점코자 하는 의도를 가지화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 행사는, 국내 정보통신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세계 각국의 현황 파악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행사는 우리협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체신부가 주관했으며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기 및 서비스의 상호융성 확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활용, 시장개방 대응방안 마련, 대국민 마인드 확산 등을 목적으로 3년째 개최되고 있다. (문의 : 이육재)

「'95년도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움」 개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내년도 정보통신산업을 전망하는 「'95년도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움」이 지난 11월 30일 63빌딩 별관 코스모스홀에서 개최됐다.

우리협회와 전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체신부가 주



▲ 「'95년도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움」은 각 분야별 경영진이 연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졌다.

관한 이 심포지움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주제발표로 나선 연사들이 대부분 각 분야별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전자문서교환 시장, 소프트웨어 산업, 시스템 통합 시장, 데이터베이스 시장, 컴퓨터 예약시스템 시장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분야별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석자와 주

제발표자간의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심포지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 심포지움에는 오길환(한국전자통신연구소 실장), 박신구(에이텔 상무이사), 안규호(금성소프트웨어 이사), 황규선(쌍용컴퓨터 상무이사), 내창엽(한국무역정보시장 사장), 송형석(한진정보통신 이사) 등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문의 : 이석호)

